

吳師機의 外治法 思想에 대한 研究
- 《理淪駢文》 中 <略言>을 中心으로

全宰弘* · 金賢兒*

ABSTRACT

A literatual study on medical thought of Wu Shi Ji (吳師機)
about external therapy
- Translation and analysis on 「Lue Yan, 略言」 in 「Li Yue
Pian Wen, 理淪駢文」

Cheon Jae-hong · Kim Hyun- ah

External therapy is a very useful method in today. But a study of theoretical basis of external therapy is very poor in Korea. So I carried out to investigate of 《Li Yue Pian Wen, 理淪駢文》. And I translated and analyzed to 《Lue Yan, 略言》, firstly.

Wu Shi Ji (吳師機) was one of the physician in qing(淸) dynasty (AD). He wrote the 《Li Yue Pian Wen, 理淪駢文》 which is the first special book on the external therapy(外治法). This is composed of 5 parts. In these parts, 《Lue Yan, 略言》 is an introduction and general remarks of this book, in which his medical thought is described well. In this part, he explained theoretical basis of external therapy and basic usage of external therapy.

He insisted that external therapy had the same theoretical basis(理) as internal therapy(內治法) and the only difference was method of therapy(法). This point of view is most important theme of his medical thought. Therefore he also explained prescription(方) and medicinal herb(藥) in this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學校室

point of view. And he said that external therapy had a merit - in an economic point of view, had a fewer side effects than internal therapy, could be used when it is impossible to use internal therapy. As a conclusion, he insisted that because external and internal therapy were interdependence, physician had to be well acquainted with both therapy.

Key word : Wu Shi Ji (吳師機), 《Li Yue Pian Wen, 理論駢文》, 〈Lue Yan, 略言〉, external therapy.

I. 緒 論

外治法은 內治法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針灸, 導引, 氣功, 按摩, 物理療法, 藥物의 外治法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¹⁾, 依義로는 藥物의 經口投與를 제외한 體表 또는 體外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²⁾. 이러한 外治法은 湯藥을 내복하는 內治法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며, 中國 最古의 醫書인 《五十二病方》 및 《內經》, 《傷寒論》 등에서 이러한 外治法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이후에 많은 醫書들에서 外治法은 散在되어 나타났으며, 점차 다양해지고 내용이 풍부해졌다. 그러나 外治法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은 清代에서 이르러서야 登場하게 된다³⁾. 吳尙先이 지은 《理淪駢文》은 外治法에 대한 理論 및 實在를 겸한 책으로 醫學史에서 중요한 著作으로 여겨지고 있다⁴⁾. 특히 首卷인 〈略言〉은 著者が 《理淪駢文》을 지은 후에 總論의 형태로 理解를 돕고자 덧붙여 序頭에 둔 글이다. 이 글을 통해 著者는 外治法에 대한 見解와 개괄적인 설명을 해놓았다.

중국에서는 外治法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되었고, 中成藥으로 大量 製造하여 臨床에 응용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國內에서도 外治法學會가 구성되고, 外治法에 대한 臨床報告나 特定疾患에 대한 外治法을 文獻考察한 報告가 있으나, 外治法에 대한 理論的 考察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著者는 外治法의 理論的인 側面을 알아보기 위해 《理淪駢文》을 살펴보던 중 略言이 《理淪駢文》의 概略과 著者의 意圖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연구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研究資料

《理淪駢文》(吳尙先 著, 步如一等 校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을 중심으로 《理淪駢文 注釋本》(吳師機 著, 趙輝賢 注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을 比交 檢討하였다. 원래 《理淪駢文》은 略言, 續增略言, 正文, 膏藥方, 治心病方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刊行時期가 一致하지는 않는다. 正文과 略言은 同治 3年(1864年)에 처음 刊行되었고, 同治 4年(1865)과 同治 9年(1870)에 膏藥方을 增補하여 다시 刊行되었고, 同治 10年(1871)에 治心病方을 增補하여 刊行되었고, 同治 11年(1872)에 續增略言을 다시 增補하여 刊行되었다. 《理淪駢文》(吳尙先 著, 步如一等 校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은 1875年 刊行本을 底本으로 하였고, 1881年 刊行本과 1886年 刊行本을 校本으로 한 것이다.

2. 研究內容

〈原文〉

外治法, 針灸最古. 自漢張仲景易針灸爲湯液, 百代宗之. 〈易〉^①曰: “窮則變, 變則通.” 顧湯液要無可變, 而針灸亦不可通. 思所以濟其窮, 無悖于古, 有利于今者, 則莫如膏藥. 余鄉居八載, 行之既驗, 不敢自秘, 爰取所集衆方, 爲駢文^②以聯綴之, 并爲發明內外治殊塗同歸之理. 質之老友, 咸曰是誠一門, 但惜爲麗體^③, 又雜子史^④, 非所以通俗也. 尙宜撮其大意爲淺語, 以提其要, 使人人開卷瞭然. 余然其言, 乃補增“略言”于首焉.

〈解釋〉

外治法은 針灸法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漢代의 張仲景이 針灸를 湯液으로 바꾼 후부터 오랜 세월 사람들이 이를 따랐다. 〈易〉에서 말하기를 “窮

하면 變하고 變하면 通한다"라고 하였는데, 돌이켜보니 湯液도 變하지 않았고, 針灸法 역시 通하지 못하였다. 내가 그 窮함을 해결할 바로 생각해 보니, 옛 것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지금에 이로운 것은 膏藥만한 것이 없었다. 내가 鄉里에 골년간 머물며 膏藥治療를 행하여 경험한 것을 감히 감추지 못하고, 이에 여러 方을 모아 駢文으로 이어서 만들고 더불어 內治法과 外治法의 두 방법이 서로 같은 이치가 됨을 밝혔다. 오랜 친구들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실로 一門을 이루었으나 다만 麗體로 되었고 또한 子와 史에서 인용한 것이 섞여있어 일반사람들이 이해할 바가 못됨이 아쉬우니 마땅히 그 대의를 모아 섞은 말로 적고 그 요점을 제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하여 "略言"을 增補하여 序頭에 둔다.

〈注釋〉

① 《周易 繫辭 下》⁵⁾에 "神農氏가 다하거늘, 黃帝와 堯舜이 일어나 그 변함을 통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지 않고, 神靈스럽게 化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니, 易이 窮하면 變하고, 變하면 通하고, 通하면 久하게 되는 지라, 이로서 天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吉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佑之 吉無不利...)"라 하였다.

② 文體의 이름. 四言이나 六言의 對句로 된 漢文의 文體를 말한다. 四六文이라고도 한다. 《理論駢文》이 이러한 駢文체로 되어있어 보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널리 유전되지 못하였고 영향도 그리 크지 않았다⁶⁾.

③ 駢文을 말한다.

④ 諸子百家的 書와 二十四史.

〈原文〉

凡病多從外入, 故醫有外治法. 經文內取外取¹⁾并列, 未嘗教人專用內治也. 若云外治不可恃, 是聖言不足信矣. 翔上用嚏¹⁾, 中用填²⁾, 下用坐³⁾, 尤捷于內服. 彼種痘者, 納鼻而傳十二經²⁾; 救卒中暴絕, 吹耳而通七竅. 氣之相感, 其神乎!

1) 嚏即吐也. 在上宜嚏. 感邪從口鼻入, 宜嚏^①

2) 如填臍散之類. 又 霍瀉, 數臍亦是.^②

3) 坐藥也. 卽下法. 如水腫搗葱坐取氣, 水自下是也.^③ 三句具 吐 汗 下 三法, 已括外治之全矣.

〈解釋〉

무릇 病은 밖에서 病邪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醫學에 外治法이 있는 것이다. 《內經》에는 內治法과 外治法을 같이 적어 놓았고, 사람을 교육할 때 內治法만을 전하지는 않았다. 만약 外治法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는 聖人의 말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개 上焦의 病을 치료할 때에는 嚏法을, 中焦의 病을 치료할 때에는 填法을, 下焦의 病을 치료할 때에는 坐法을 사용하면 內服하여 치료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가 빠르다. 種痘를 하는 자에게 藥을 코에 넣어 十二經으로 傳하고, 卒中風으로 暴絶한 것을 救할 때에 藥을 귀에 붙여넣어 七竅를 통하게 한다. 이렇게 氣가 서로 感應하는 것이 귀신과 같이 신묘하다!

1) 嚏는 즉 吐法이다. 邪氣가 上焦에 있는 것은 마땅히 嚏法을 사용한다. 邪氣에 感하는 것은 입과 코로 들어오는 것이니 마땅히 嚏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填臍散의 類와 같은 것이다. 또한 霍瀉法이나 數臍法 또한 이것이다.

3) 坐藥이란 것은 下法이다. 水腫에 葱을 찢어서 앉아 그 氣를 쐬면 水氣가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다. 위의 세 구절은 吐, 汗, 下 三法을

모두 갖추었으니 이미 外治法의 全體를 概括하였다.

〈注釋〉

① 內治와 外治를 말한다. 《素問 五常政大論》7)에 “그러므로 가로되, 上取, 下取하고 內取, 外取하여 그 過함을 求하며...(故曰 上取下取 內取外取 以求其過.)”라고 하였다.

② 당시 種痘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痘衣法으로痘疹을 앓았던 아이의 內衣를 아직痘疹이 걸리지 않은 아이에게 입히어痘가 나오게 하는 것인데, 효과가 좋지 않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鼻苗法이 있는데,痘漿을 사용하거나乾痘痂屑을 鼻中에 붙여넣거나濕痘痂를 숨에 싸서 鼻中에 발라서痘가 나오게 하는 것이다8). 여기서는 鼻苗法을 말하는 것이다.

③ 嚏法을 말한다. 吹鼻法이라고도 한다. 코에 약을 붙여넣어 재채기를 유발하여治療效果를 얻는 外治法의 一種이다. 吳師機는 〈續增略言〉9)에서 “무릇 上焦의 病에는 藥을 細末하여 코에 붙여넣어서 재채기를 誘發하여 發散하는 것이 第一 빠른 법이다.(大凡上焦之病, 以藥研細末, 口畜鼻取嚏發散爲第一捷法.)”라고 하였다.

④ 罨法은 外治法의 하나로, 물 또는 藥汁으로 局部를 덮는 방법을 말한다. 敷는 外治法의 하나로 약을 찜어 붙이거나, 말린 약을 粉末한 후 酒, 蜜, 醋 등으로 개어 局部에 붙여 장시간 藥物作用을 발휘시키는 것이다. 吳師機는 〈續增略言〉10)에서 “中焦의 病에는 藥을 切斷하여 粗末하고 炒하여 쫄이 나게 하여서 이를 배꼽 위에 덮어 동여메어 두는 것이 제일 빠른 법이다.(中焦之病, 以藥切粗末炒香, 布包縛臍上爲第一捷法.)”라고 하였다.

⑤ 坐藥은 약제를 丸劑, 錠劑, 片劑로 제조하거나 분말한 약을 붓대 등으로 싸서 陰道 또는 肛門 내에 집어넣어 疾病을 治療하는 外治法의 일종이다. 吳師機는 〈續增略言〉11)에서 “下焦의 病에는

藥을 或 研末하거나, 或 炒하거나, 或 症狀에 따라 만들어, 身體의 下部에 덮어 앉아서 治療하는 것이 제일 빠른 법이다.(下焦之病, 以藥或研或炒, 或隨症而制, 布包坐于身下爲第一捷法)”라 하여, 前陰이나 後陰, 혹은 下肢에 있는 穴에 사용하였다.

〈原文〉

《內經》用桂心漬酒以熨^①寒痺^②, 用白酒和桂以涂風中血脈^③, 此用膏藥之始. 仲景桂枝湯治風寒, 調和營衛, 實祖于此. 今以湯頭還爲膏藥, 于義爲反其本, 以爲妄變古法者非也.

〈解釋〉

《內經》에서 寒痺에 桂心을 술에 적시어, 이것으로 熨法을 사용하여 치료하였는데, 白酒와 桂로 風을 맞은 血脈에 발랐다. 이것이 膏藥을 사용한 始初이다. 仲景이 桂枝湯으로 風寒을 치료하고 營衛를 조화롭게 하였는데, 실제로 이것의 根源은 內經에서의 外治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들어켜 湯藥을 膏藥으로 만드는 것은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뜻이니, 이것은 옛 법을 망령되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注釋〉

① 熨法, 藥物을 加熱하여 붙이는 일종의 外治法을 말한다.

② 《靈樞 壽夭剛柔篇》12)에 “黃帝가 말하기를 ‘藥으로 熨함은 어떠합니까?’, 伯高가 가로되 ‘淳酒 二十升과 蜀椒 一升과 乾薑 一斤과 桂心 一斤해서, 네 가지를 用하여 모두 咬咀하여 酒中에 漬하고...(黃帝曰 藥熨奈何. 伯高答曰 用淳酒二十升, 蜀椒一升, 乾薑一斤, 桂心一斤, 凡四種, 皆咬咀, 漬酒中...)’라 하여 寒痺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③ 《靈樞 經筋篇》13)에 “이를 治함은 馬膏로 그 急한데를 膏하고, 白酒를 桂와 和하여서 그 緩한 데를 塗하고...(治之以馬膏, 膏其急者, 以白酒和

桂, 以塗其緩者...)”라 하여, 足陽明經筋에 나타나는 口眼喎斜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原文》

外治之理, 卽內治之理; 外治之藥, 亦卽內治之藥, 所異者法耳. 醫理藥性無二, 而法則神奇變幻. 上可以發泄造化五行之奧蘊, 下亦扶危救急層見疊出而不窮. 且治在外則無禁制, 無窒碍, 無牽掣, 無沾滯^①. 世有博通之醫, 當于此見^②其才.

《解釋》

外治法의 이치는 곧 內治法의 이치이다. 外治法에 사용되는 약도 또한 內治法에 사용되는 약이니, 外治法과 內治法의 다른 점은 치료방법일 뿐이다. 醫理와 藥性은 둘이 아니며, 치료방법은 變化無常하다. 위로(理致에 있어서)는 造化로운 五行의 깊고 오묘한 이치를 밝히고, 아래로(實在의 인치로에 있어서)는 위급한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서 끝이 없다. 또한 外治는 禁忌가 없고 拘碍받을 것이 없다. 만약 세상에 널리 통한 명의가 있다면 마땅히 이 外治法으로 그 재능을 나타낼 것이다.

《注釋》

① 窒碍, 牽掣, 粘滯는 모두 구애받다, 지장을 받다라는 의미.

② 現, 나타내다.

《原文》

外治必如內治者, 先求其本. 本者何? 明陰陽, 識臟腑也. 《靈》《素》而下, 如《傷寒論》《金匱》以及諸大家所著, 均不可不讀. 卽喻嘉言, 柯韻伯, 王晉三諸君所闡發, 俱有精思, 亦不可不細繹. 今無名師, 是卽師也. 通徹之後, 諸書皆無形而有用. 操縱變化自我, 雖治在外, 無殊治在內也. 外治之學, 所以顛撲不破^①者此也. 所以與內治并行, 而能補內治之不及

者此也. 若不考其源流, 徒恃一二相傳有效之方, 自矜捷徑秘訣, 而中無所見, 設遇疑難之症, 古無傳方, 其不坐窞者幾何? 或知其一未知其二, 此雖無失, 而彼已陰受其損者有矣. 諺云: “醫得頭痛眼又瞎”, 良工要不如是也.

《解釋》

外治法은 반드시 內治法과 같이 그 根本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 根本이란 무엇인가? 陰陽의 이치와 臟腑를 아는 것이다. 根本을 알려고 한다면 《靈樞》와 《素問》以下, 《傷寒論》, 《金匱要略》 및 여러 大家들의 著作을 모두 읽어야만 한다. 곧 喻嘉言, 柯韻伯, 王晉三 등의 著作들은 모두 나타내어 밝힌 것이 정밀하니 역시 세심하게 공부해야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스승이 없다고 하나, 이러한 著作들이 곧 스승이다. 철저히 깨달은 후에야 이들 醫書가 모두 形體가 없는 중에 그 有用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變化를 다루는 것은 自己에게 있으니, 비록 곁을 치료하지만 內治法과 다름이 없다. 外治法이 뒤집을 수 없는 사실되는 것이 이러한 때문이며, 外治法을 內治法과 并行하여 능히 內治法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만약 그 源流를 고찰하지 않고 단지 한 두 가지 전해오는 유효한 處方만을 믿고서 스스로 첩경이 되는 비결을 얻었다 자만하면서도, 가슴속에 아는 바가 없어 의심나고 어려운 병을 만나서는 말하기를 ‘옛부터 전해오는 방이 없다’고 궁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혹 의사가 하나를 알고 들을 모르는 자라면 비록 실수가 눈에 띄이지 않을 지라도, 이미 보이지 않게 손상을 입은 자가 있을 것이다. 민간에 말하기를 “의사가 두통은 고쳤으나 눈이 멀었다”라고 하니, 좋은 의사는 이와 같아서는 않된다.

《注釋》

① 理論이나 學說이 客觀的인 사실에 부합되어
되었을 수 없다.

〈原文〉

膏如藥^①分爲二, 臨症活變在此. 有但用膏而不必藥者, 有竟用藥而不必膏者, 有膏與藥兼用者, 有膏自膏藥自藥, 以相反相濟爲用者; 有膏即藥藥即膏, 以相佐相益爲用者. 古人于熬^②者曰膏, 撮者曰藥, 茲合之而兩全. 今人混言膏藥, 茲離之而各妙.

〈解釋〉

膏와 藥은 나누면 둘이 되니, 臨床을 할 때에 圓滑하게 運用되는 것이 膏와 藥이 나누어지는데 있다. 膏만을 사용하고 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藥만을 사용하고 膏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膏와 藥을 兼해서 사용할 경우가 있다. 膏는 膏이고 藥은 藥인 경우는 각각 藥物의 性味が 相反되고 相互制約하는 것을 사용한 경우이고, 藥이 膏이고 膏가 藥인 경우는 각각 藥物의 性味が 相互補佐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사용한 경우이다. 옛 사람들은 오래 달인 것을 膏라하고, 집어서 그냥 쓰는 것을 藥이라 하였으니, 이 두 가지를 합한다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해진다. 지금의 사람들이 섞어서 혼란 되게 膏藥이라고 하니, 이 膏와 藥을 잘 나눈다면 각각의 묘용이 있는 것이다.

〈注釋〉

① 膏劑와 다른 劑型으로 外治法에 사용하는 藥物.

② 대개 볶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여기서는 오래 삶다, 오래 끓이다.

〈原文〉

膏, 綱也; 藥, 目也. 膏判上, 中, 下三焦, 五臟六腑, 表裏 寒熱 虛實, 以提其綱; 藥隨膏而條分縷析, 以爲之目. 膏有上焦心肺之膏, 有中焦脾胃之膏, 有

下焦肝腎之膏. 有專主一臟之膏, 臟有清有溫; 有專主一腑之膏, 腑有通有澁. 又有通治三焦, 通治五臟, 通治六腑之膏. 又有表裏寒熱虛實分用之膏, 互用之膏, 兼用之膏. 藥則或移膏內^③, 或數膏外, 或先膏而用洗擦, 或後膏而用熏熨. 膏以師藥, 藥以助膏. 景嵩匡謂: “觀《大易》^④陰陽消長, 可知內治之理.” 愚謂觀一部《周禮》^⑤, 六官分職, 陳設置輔^⑥, 敷布精密, 水泄不漏, 可爲用膏藥之法. 讀書人當識此意^①.

1) 膏內移藥, 可取單方驗者研末備用. 數藥宜作錠^⑤. 餘藥皆現制.

〈解釋〉

膏는 大綱이요, 藥은 條目이다. 膏는 上 中 下 焦, 五臟六腑, 表裏, 寒熱, 虛實로 나뉘니 이로서 (이 책의) 大綱을 삼는다. 藥은 膏를 따라 條를 나누어 分析하니 이로서 (이 책의) 條目を 삼는다. 膏에는 上焦에 있는 心肺에 사용하는 膏가 있고, 中焦에 있는 脾胃에 사용하는 膏가 있고, 下焦에 있는 肝腎에 사용하는 膏가 있다. 하나의 臟을 치료하는 膏가 있고, 臟을 치료하는 데는 또한 淸法과 溫法이 있다. 하나의 腑를 치료하는 膏가 있고, 腑를 치료하는 데는 또한 通法과 澁法이 있다. 또한 三焦를 通治하는 膏, 五臟을 通治하는 膏, 六腑를 通治하는 膏가 있다. 또 表裏寒熱虛實을 나누어 사용하는 膏가 있고, 表裏寒熱虛實에 互用하는 膏, 兼用하는 膏가 있다. 藥은 膏의 內에 섞은 것이 있고, 膏의 밖에 붙이는 것이 있고, 膏를 사용하기 전에 씻거나 摩擦하는 것이 있고, 膏를 사용한 후에 煙氣를 쫓거나 熨法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膏는 이끄는 것이 되고, 藥은 膏를 돕는다. 景嵩匡가 말하기를 “《周易》의 陰陽消長하는 이치를 보고 內治法의 이치를 알았다.” 하였는데 나는 《周禮》의 一部를 보고 六官이 그 職責을 나누어 官吏들을 배치하고 庶民들을 배치하듯이, 그 按配가 정밀하여 물센 틈이 없으니 膏와 藥을 사용하는 법이라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책을 읽는 사

람은 마땅히 이러한 뜻을 알아야 한다.

1)膏 안에 섞는 藥은 單用으로 효험이 있는 것을 가루를 내어 미리 준비하였다가 사용하는 것이다. 藥을 數하는 것은 마땅히 錠을 만들어야 한다. 나머지 藥들은 모두 그냥 사용한다.

〈注釋〉

① 섞다라는 의미. 여기서는 糝藥의 의미로 少量의 粉末된 藥을 膏藥의 中心에 놓고 患部에 附着하는 것을 말한다.

② 《周易》.

③ 본래 명칭은 《周官》이며, 《天官》, 《地官》, 《春官》, 《夏官》, 《秋官》, 《冬官》 등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周禮 冢宰》에 “陳其殷, 置其輔”에서 인용하였다. 鄭玄이 注를 달기를 “殷은 무리이니 선비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輔는 府史이니 관청에 있는 庶人이다.”¹⁴⁾

⑤ 藥物 劑型的 하나로, 藥物을 微細한 가루로 만들어 적당량의 接合劑를 첨가한 후 갖가지 형태의 알약을 製造하여, 內服 時에는 부수어서 溫水로 복용하고, 外用 時에는 물, 醋, 麻油 등을 사용하여 함께 갈거나 가루로 부수어 患部에 바르는 것을 말한다.

〈原文〉

膏方取法, 不外于湯丸. 凡湯丸之有效者皆可熬膏, 不僅香蘇, 神朮, 黃連解毒, 木香導滯, 竹瀝化痰, 以及理中, 健中, 調胃, 平胃, 六君, 六味, 養心, 歸脾, 補中益氣等, 爲常用之方也. 或謂用湯丸熬膏, 何不內服? 不知吾惟不敢爲內服, 故用膏耳. 自來相戒, 悞人非必毒藥也. 所見不眞, 桂枝下咽, 承氣入胃, 并可以斃. 卽一味麻黃, 一味黃連, 一味白朮, 一味熟地, 用不得當, 貽害無窮. 愚者自是而不知其非, 旁觀皆竊笑之. 明者心知之而不肯自言, 未嘗不愧且悔也, 然焉能吐而出之乎? 或又云: “良工可不患此.” 亦思

良工, 古今有幾? 且良工亦不廢外治. 昔葉天士用平胃散炒熨治痢, 用常山飲炒嗅治瘧, 變湯劑爲外治, 實開後人無限法門. 吾之用膏, 卽本于此. 使必內服而後可, 無論妄爲下藥, 藥適加病; 儻遇不肯服藥之人, 不能服藥之症, 而其情其理萬萬¹⁵⁾不忍坐視者, 又將何法以處之?

〈解釋〉

膏藥의 藥을 配伍하여 方을 만드는 법은 湯劑와 丸劑를 配伍하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무릇 湯劑와 丸劑 중 효과가 있는 것은 대개 삶아서 膏를 만들 수 있으니, 香蘇散, 神朮散, 黃連解毒湯, 木香導滯丸 등의 方뿐 아니라 理中湯, 建中湯, 調胃承氣湯, 平胃散, 六君子湯, 六味地黃元, 養心湯, 歸脾湯, 補中益氣湯 등의 常用하는 方들이 있다. 或者가 湯劑와 丸劑를 만드는 藥들을 삶아 膏를 만드는데 왜 內服하지 못하는가 라고 물으니, 이렇게 묻는 것은 내가 감히 內服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고, 따라서 膏藥을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옛부터 내려오는 警戒의 말로 ‘사람을 傷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毒藥뿐만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의사의 견해가 맞지 아니한데 桂枝湯을 먹게 하거나 承氣湯을 먹게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곧 麻黃 黃連 白朮 熟地黃 하나 하나가 적당하게 쓰이지 못한다면 그 兪惡이 끝이 없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맞다하고 그 틀린 것을 알지 못하니 옆에서 보는 자가 모두 마음속으로 그를 비웃는다. 현명한 자는 藥을 잘 못쓴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서 스스로 말로 긍정하지는 않더라도 괴로워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먹은 藥을) 능히 吐해서 내놓을 수 있겠는가? 或者는 또 말하기를 “뛰어난 의사는 이러한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생각컨대 역사상 뛰어난 의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또한 뛰어난 의사는 역시 外治法을 排斥하지 않았다. 옛날 葉天士는

平胃散을 炒하여 熨法으로 痢疾을 치료하였고, 常山飲을 炒하여 膿毒을 말게 하여 瘧疾을 치료하였는데, 湯劑를 바꾸어 外治法으로 사용하였으니 진실로 後人에게 수많은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을 開拓한 것이다. 내가 膏藥을 사용하는 것은 곧 이러한 것에 근본을 두고 있다. 만일 內服하게 하여 病이 나오면 좋으나, 분별없이 마구 攻下藥을 투여한다면 藥이 病을 더욱 심하게 만든다. 갑자기 內服하기를 拒否하는 환자나 內服할 수 없는 病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의사의 道理와 人情을 가지고 이러한 환자를 坐視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는 자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注釋〉

① 결코, 절대로.

〈原文〉

膏可以通治百病, 人皆譏之, 且舉名賢論紫金錠通治百病之非爲證. 不知此亦偏見耳. 藥不止走一經治一症, 匯而集之, 其通治也固宜. 如沖和湯^①爲太陽解表之方, 而春可治溫, 夏可治熱, 秋可治濕, 以治雜症亦有神也. 通聖散^②爲雙解表裏之方, 而兼治風熱燥三症. 五積散爲內傷外感之方, 而內而臟腑, 外而皮毛經絡, 上而頭項, 下而腰脚, 婦人調經, 無不可用. 又丹溪治痛風, 有上中下寒濕食血痰統治方. 東垣中滿分消丸, 合二陳平胃瀉心四苓六君爲一方. 麻黃白朮散治風火濕熱鬱而爲病, 表裏寒熱補瀉之藥咸備. 越鞠治氣合痰血食濕熱變之而爲薛己八味逍遙^③, 加之而爲養生六鬱解毒^④. 高鼓峰^⑤治血, 以一方統七情飢飽勞役等因, 胡念齋深服之, 陳修園復賞之. 他如三和湯 三一承氣 三一腎氣 六一順氣之類, 古方如此者不勝枚舉. 膏藥本其意而更推之擴之, 雖治百病何難? 要之, 人病不外氣滯血凝, 及陰有寒濕, 陽有燥熱而已. 觀《病機十九條》^⑥, 文曰: “皆屬”, “皆” 卽統也. 病可統而藥不可統乎? 知其要者, 一言

而終. 制膏藥者, 亦在乎能握其要而已. 滿屋散錢, 以一線貫串百錢可, 卽千錢萬錢亦無不可, 是所謂握其要也. 一副^⑦牙牌^⑧不過單雙配合, 而千變萬化, 用無窮盡, 是亦所謂握其要也. 握要之道, 一“通”字該之. 理通, 則治自通矣. 然“通”須虛心讀書.

〈解釋〉

膏藥이 百病을 通治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를 나무라며, 옛 名醫가 ‘紫金錠으로 百病을 通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것을 그 근거로 내세운다. 이것을 모르는 것도 역시 偏見이다. 藥은 하나의 經絡만을 달리지 않는고, 하나의 病症만을 치료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니, 이러한 하나 하나의 藥들을 두루 모아서 配伍한다면 百病을 通治한다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 것이다. 예를 들어 羌活沖和湯은 太陽病의 解表하는 方으로 봄에는 溫病을 치료하고, 여름에는 熱症을 치료하고, 가을에는 濕症을 치료하고, 또 이로서 雜病을 치료하는데도 신묘하다. 防風通聖散은 表裏를 雙解하는 方으로 兼하여 風熱燥三症을 치료한다. 五積散은 內傷과 外感을 치료하는 方으로 안으로는 臟腑, 밖으로는 皮毛經絡, 위로는 頭項, 아래로는 腰脚, 婦人의 調經에 이르기까지 쓰지 못할 데가 없다. 또한 丹溪는 痛風을 치료하는데 上中下焦와 寒濕食血痰을 通治하는 方을 사용하였다. 東垣의 中滿分消丸은 二陳湯, 平胃散, 瀉心湯, 四苓散, 六君子湯을 合하여 하나의 方을 이룬 것이다. 麻黃白朮丸은 風火濕熱이 鬱滯되어 病이 된 것을 치료하는데, 表裏 寒熱 補瀉의 藥物을 모두 갖추었다. 越鞠丸은 氣病에 痰血食濕熱이 兼한 것을 치료하는데, 이를 加減하여 變化시키면 薛己의 八味逍遙散이 되고, 그것에 加味하면 養生作用을 하는 六鬱解毒湯이 된다. 高鼓峰은 血病을 치료하면서 하나의 方으로 七情飢飽勞役 등의 原因으로 인한 것을 通治하였는데, 胡念齋는 이것에 매우 感服하였고, 陳修園 또한 매우 感歎하였

다. 이 외에 三和湯, 三一承氣湯, 三一腎氣丸, 六一順氣丸 같은 通治百病할 수 있는 古方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膏藥의 본뜻을 다시 살펴 고 擴大한다면, 通治百病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要約하면, 사람들이 병이 생기는 것이 氣滯와 血凝이 영향을 미쳐서 陰으로는 寒濕, 陽으로는 燥熱로 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 《病機十九條》에서 말하기를 “某某는 모두 某某에 屬한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皆”는 곧 “統括한다”의 意味이다. 병을 가히 ‘統括’할 수 있는데 어찌 藥을 統括하지 못하겠는가? 그 要點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 말로 모두 把握할 수 있다. 膏藥을 만드는 것은 역시 그 要點을 능히 把握하는데 있다. 집안에 돈이 가득 들어차 있다하더라도, 한 줄로써 꿰어야 백냥을 만들 수 있고, 이처럼 한다면 천냥과 만냥을 만드는 것 또한 안될 것이 없으니, 이것이 그 要點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 벌의 牙牌는 單雙의 配合에 불과하지만 千變萬化하고 그 效用 또한 무궁무진하니, 이것이 또한 그 要點을 파악하는 것이다. 요점을 파악하는 길은 ‘通’자로서 概括할 수 있다. 그 이치에 통하면 치료 또한 스스로 통하게 된다. 그러나 ‘通’하려 한다면, 반드시 虛心으로 讀書하여야 한다.

〈注釋〉

① 羌活神和湯, 즉 九味羌活湯.

② 防風通聖散.

③ 丹梔逍遙散.

④ 六鬱解毒湯.

⑤ 清代의 醫家. 字는 且中, 號는 鼓峰. 浙江省 鄞縣人으로 當地의 名醫. 《醫家心法》, 《四明心法》 등의 著作이 있다¹⁵⁾.

⑥ 《素問 至眞要大論》¹⁶⁾에 “諸風掉眩은 대개 肝에 屬한다...(岐伯曰 諸風掉眩皆屬於肝,...)”

⑦ 한 벌, 한 쌍.

⑧ 象牙로 만든 호패의 한 가지.

〈原文〉

外治藥中多奇方. 學識未到斷不能悟. 或少見多怪^①, 反訾古人爲非, 則大不可. 吾謂醫之所患在無法耳. 既有其法, 方可不執. 如一症中古有洗法^②, 熏法^③, 我即可以藥洗之 熏之; 有菴法 擦法^④ 熨法, 我即可以藥菴之, 擦之 熨之. 原方可用則用, 不可用則選他方, 或制新方用之. 張元素云: “古方今病不相能.” 許學士云: “用其法不用其方.” 非獨時異勢殊, 症多遷變, 方未可拘泥. 亦恐後人不識前人, 妄加訾議, 而教人以圓而用之之法也. 所謂善于師^⑤古者此也.

〈解釋〉

外治方 중에 효과가 神妙한 方이 많으나, 學識이 도달하지 못하면 결코 이를 깨달을 수 없다. 혹 所見이 좁아서 세상의 물정을 잘 모르는 자가 오히려 古人이 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니,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의사의 병됨은 타당한 치료방법을 가지지 못한데 있다라고 하였다. 만약 이미 치료방법이 있다면 思想上에서 方에 拘碍받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하나의 症狀에 옛부터 洗法과 熏法이 있었으므로, 나는 藥으로서 洗하거나 熏할 수 있었고, 菴法 擦法 熨法이 있었으므로 나는 藥으로서 菴 擦 熨할 수 있었다. 원래의 方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른 方을 고르거나 혹은 새로운 方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張元素는 “옛날의 方은 요즘의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였고, 許叔微는 “그 治法을 사용할 뿐이지 그 方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다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형세도 바뀔 뿐 아니라 病症 또한 변화가 많으므로, 處方에 대해 矚착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後人들이 先人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비유를 덧붙였으니, 이로서 사람들에게 圓滑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뜻이다. 소위, 옛 것을 잘 본받는 자런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注釋〉

① 見聞이 좁아 세상 일에 어둡다.

② 外治法의 일종으로 藥物을 달여서 湯液을 만들어 씻는 것을 말한다.

③ 外治法의 일종으로 熱氣熏과 烟熏 두 가지가 있다. 熱氣熏法은 약수를 주둥이가 작은 그릇 속에 넣어 끓이면서 患部에 熏氣를 쐬어는 것이고, 烟熏法은 藥을 微細한 가루로 만들어 종이에 약가루를 말거나 기름에 적시어 사용할 적에 불을 붙여 患部에 煙氣를 쐬는 것이다.

④ 摩擦法. 外治法의 일종으로 油劑, 膏劑 등으로 患部를 摩擦하는 법을 말한다.

⑤ 效法. 법을 본받다.

〈原文〉

膏中用藥味, 必得通經走絡 開竅透骨 拔病外出之品爲引, 如薑 葱 韭 蒜 白芥子 花椒, 以及槐 柳 桑 桃 蓖麻子 鳳仙草 輕粉 山甲之類, 要不可少, 不獨水 麝也. 補藥必用血肉之物, 則與人有益, 如羊肉湯 豬腎丸 烏骨鷄丸 鱉甲煎 鯽魚膏之類, 可以倣加. 若紫河車則斷不可用. 或用牛胞衣代之, 其力尤大, 此補中第一藥也. 須知外治者, 氣血流通即是補, 不藥補亦可.

〈解釋〉

膏藥에 사용하는 약들은 반드시 通經走絡 開竅透骨 拔病外出하는 藥物의 引導를 얻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生薑 葱白 韭 蒜 白芥子 花椒 및 槐 柳 桑 桃 蓖麻子 鳳仙花 輕粉 穿山甲 등 그 수가 적지 않으니, 단지 冰片과 麝香만 있는 것은 아니다. 補藥은 반드시 血肉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사람에게 유익하다. 예를 들어 羊肉湯, 豬腎丸, 烏骨鷄丸, 鱉甲煎, 鯽魚膏 등이 있으니 본받아 加減하여 사용할 만하다. 紫河車는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或

者는 牛胞衣를 대신하여 사용하는데, 그 효력이 紫河車에 비해 더욱 커서 補藥 중에 제일이다. 모름지기 外治에 있어서는 氣血을 流通시키는 것이 곧 補하는 것이고, 藥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補하는 것이 역시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原文〉

膏中用藥味, 必得氣味俱厚者方能得力. 雖蒼朮, 半夏之燥, 入油則潤; 甘遂 牽牛 巴豆 草烏 南星 木鱧之毒, 入油則化, 并無碍. 又炒用 蒸用, 皆不如生用. 勉強^①湊用^②, 不如竟換用^③. 統領健兒, 斬關奪門, 擒賊殲魁, 此兵家之所以制勝也. 膏藥似之. 若以今醫所處和平輕淡之劑相繩, 則見者驚走矣.

1) 如銀花換忍冬藤 茯苓換車前子之類.

〈解釋〉

膏에 사용하는 藥들은 반드시 氣味가 厚한 것이어야 모름지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蒼朮과 半夏가 燥하지만 기름을 넣으면 潤해진다. 甘遂 牽牛子 巴豆 草烏 南星 木鱧에 毒이 있지만 기름을 넣으면 和解되고 더불어 毒性을 없앨 수 있다. 또한 炒하여 사용하거나 蒸하여 사용하는 것은 모두 生用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듯 무리하게 臨時變通하여 사용하는 것은 다른 약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만 못하다. 건장한 정예군을 이끌고 關門으로 쇄도하여 적을 사로잡고 두목을 죽이는 것은 兵家에서 적을 이기는 이치이다. 膏藥 또한 이와 비슷하다. 만약 지금의 一律의으로 和平하고 輕痰한 藥을 기준으로 삼는 의사가, 이처럼 氣味가 厚한 藥을 쓰는 것을 본다면 놀라서 도망가버릴 것이다.

1) 예를 들어 金銀花를 忍冬藤으로 바꾸어 사용하거나 茯苓을 車前子로 바꾸어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注釋〉

- ① 마지 못해하다.
- ② 임시로 변동하다. 아쉬운대로 하다.

〈原文〉

膏藥熱者易效，涼者次之，熱性急而涼性緩也。攻者易效，補者次之，攻力猛而補力寬也。然大熱之症，受之以涼，其氣即爽；極虛之症，受之以補，其神即安¹⁾。只在對症耳。若夫熱症亦可以用熱者，一則得熱則行也，一則以熱引熱使熱外出也，即從治之法也。虛症也可以用攻者，有病當先去，不可以養患也。且以氣相感，虛人亦能勝，無虛虛之禍也。此又在臨症之斟酌而變通也²⁾。

- 1) 虛人喜按者，其空處有以實之也，況得補膏乎？
- 2) 寒多氷伏，瘀積不去，愈補愈劇。

〈解釋〉

膏藥은 熱한 것이 쉽게 효과가 나타나고, 涼한 것이 그 다음이니, 熱한 것은 성질이 急하고, 涼한 것은 성질이 緩慢하다. 攻伐하는 것이 효과가 쉽게 나타나고, 補하는 것이 그 다음이니, 攻伐하는 힘은 猛烈하고, 補하는 힘은 느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熱이 심한 증상에 涼한 膏藥으로 치료하면 그 氣가 상쾌해지고, 극히 虛弱한 증상에 補하는 膏藥으로 치료하면 그 神이 곧 安靜된다. 다만 그 症狀에 맞추어야 한다. 만약 熱症에 역시 熱한 膏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는 熱을 얻어서 行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熱로서 熱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니, 곧 從治하는 법이다. 虛症에 攻伐하는 膏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病에 마땅히 먼저 제거해야 할 邪氣가 있어서 이니, 病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膏藥을 사용하는 것은 氣로 서로 感應하는 것이니 虛弱한 사람도 능히 堪當할 수 있어서 虛한 것을 더욱 虛하게 만드는 禍르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또한 臨床에서 斟酌하여 變通해야 할 것이다.

1) 虛弱하여 누르면 좋아하는 자는 이 正氣가 비어 있는 곳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더하여 補膏를 사용한다면 어떠하겠는가?

2) 寒이 많아 얼음과 같아 瘀血과 積聚가 除去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補를 할 수록 더욱 甚해지게 된다.

〈原文〉

古湯斗治一症，往往有寒熱併用者，有消補兼行者，膏藥何獨不然？《精要》^①有貼溫膏敷涼藥之說，足爲用膏藥者之一訣。推之亦可貼補膏敷消藥也。此即扶正以逐邪之義也。若治兩症則寒熱消補雖同用，而上不犯下，下不犯上，中不犯上 下。更無顧忌。

〈解釋〉

옛날에 湯液으로 하나의 病症을 치료하면서, 간혹 寒藥과 熱藥을 같이 사용한 것과 消導藥과 補藥을 兼하여 사용한 것이 있는데, 어찌 膏藥만이 그렇지 않겠는가? 《本草品匯精要》에 '溫膏를 붙이는데 涼藥을 바른다'는 말이 있는데, 膏藥을 사용하는데 하나의 秘訣이 될 만한 말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補膏를 붙일 때 消導藥을 바르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것 역시 正氣를 길러서 邪氣를 쫓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두 가지 증상을 치료한다면 비록 寒性의 藥과 熱性의 藥, 消導하는 藥과 補하는 藥을 같이 사용해야 하지만 上焦에 작용하는 藥이 下焦를 犯하지 않고, 下焦에 작용하는 藥이 上焦를 犯하지 않고, 中焦에 작용하는 藥이 上焦와 下焦를 犯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고려하여 거리낄 것이 없다.

〈注釋〉

① 《本草品匯精要》. 藥物學의 著作으로 42卷으로 이루어졌다. 明代 太醫院의 劉文泰 등이 1505년에 編撰함¹⁷⁾.

〈原文〉

仲景《傷寒論》有火熏令其汗 冷水噴之 赤豆納鼻 豬膽汁蜜煎導法, 皆外治也. 汗 下之法具矣. 用之失宜, 非法之咎也. 後賢于痞氣 結胸 又有蠶法 熨法. 是病發于陰而誤治者, 與病發于陽而誤治者^①, 皆有法也. 至于無陽者宜蒸, 臟結者宜灸, 于無法之中更出一法, 至周且詳矣. 而特以才高識妙, 不必專主外治, 故外治方不若內治之備. 然博采諸書, 未始^②不粗有其規模. 或謂溫症斷不能用外治. 吾謂溫症治法, 皆從傷寒推出, 能者特于源流辨之分明耳.

〈解釋〉

仲景의 《傷寒論》에 불을 쬐어 땀을 내게 하거나, 冷水를 뿌거나, 赤小豆로 코를 막거나, 豬膽汁蜜煎導法을 사용한 것은 모두 外治法이다. 이렇듯 汗法과 下法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外治法을 사용할 때 마땅한 바를 잃게 되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仲景 以後에 뛰어난 의사들은 痞氣와 結胸의 치료에 蠶法과 熨法을 사용하였다. 이것으로부터 병이 음에서 발생한 것을 잘못 치료한 경우(痞氣)와 병이 양에서 발생한 것을 잘못 치료한 경우(結胸)에도 모두 상응하는 外治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無陽症에는 蒸法이 마땅하고, 臟結症에는 灸法이 마땅하니 방법이 없는 중에도 다시 새로운 방법이 생기니 前人들이 이미 상세히 밝혀놓았다. 歷代의 재주가 높고 식견이 고명한 의사는 外治法만을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外治方을 內治方만큼 整備해놓지 못하였다. 그래서 널리 여러 서적을 모았으나, 그 규모에 있어서 영성함이 없지 않다. 或者가 溫病에는 결코 外治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나, 나는 溫病의 治法은 대개 傷寒에서 미루어 나온 것이니 능숙한 의사는 단지 그 병의 근본을 판별하는데 분명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注釋〉

① 《傷寒論》 18)131條에 “病이 陽에서 發하였는데 오히려 瀉下시키면, 熱이 入하여 이로 因하여 結胸이 생긴다. 病이 陰에서 發하였는데 오히려 瀉下시키면, 이로 因하여 痞가 생긴다.(病發于陽而反下之, 熱入因作結胸; 病發于陰而反下之, 因作痞也.)” 라고하여 誤治로 因하여 생긴 結胸과 痞氣를 설명하고 있다.

② 결코 ~이지 않다.

〈原文〉

如吳鞠通《溫病條辨》, 大旨在手太陰 足太陽 傷陽 傷陰上認得清. 至所用瀉心, 白虎等法, 豈能外于傷寒? 而傷寒外治: 于熱邪傳裏, 有黃連水洗胸法 皮硝水塌胸法^① 芫花水拍胸法^② 石膏和雪水敷胸法 老婢和鹽搗敷胸法; 發斑, 有膽汁 青黛水 升麻水搽法^③; 吐衄, 有井水噴法^④ 搭法^⑤; 蓄血, 有蘇葉湯摩法^⑥; 通有犀角地黃熬貼法. 其餘傷寒兼症 變症, 無不各有外治法. 凡熱病應用之藥, 傷寒皆有之. 即傷寒所未有, 不難以傷寒之所有者, 比類求之. 然則以外治法治溫症, 即可從外治傷寒之法推之已. 或又謂溫症傳變至速, 非膏藥所及. 不知湯丸, 不能一日數服, 而膏與藥, 可一日數易, 只在用者之心靈手敏耳. 惟是法由我造, 不能爲檢方治病者道也. 破習見而化拘牽^⑦, 是所望于聰明理達者^⑧.

1) 寒溫傳變, 往往藥煎成而症已換, 醫何能待? 膏可預截, 較昔人先用葛根斷陽明, 蒼朮安太陰尤穩.

〈解釋〉

예를들어 吳鞠通이 지은 《溫病條辨》의 큰 要旨은 手太陰經과 足太陽經 및 傷陽과 傷陰의 구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吳鞠通의 瀉心湯이나 白虎湯 등을 사용하는 治法이 어찌 《傷寒論》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傷寒論》의 外治法에는 : 熱邪가 안으로 傳入하였을 때에는 黃連水로 가슴을 씻는 법, 皮硝水를 가슴에 떨어뜨리는 법, 芫花水로 가슴을 두드리는 법, 石膏와

는 녹은 물을 가슴에 바르는 법, 늪은 蚯蚓과 소금을 찢어서 가슴에 바르는 법 등이 있다. 傷寒發斑에는 膽汁, 靑黛水, 升麻水를 술에 묻혀 바르는 법이 있다. 吐衄에는 우물물을 뿜거나 바르는 법이 있다. 蓄血證에는 蘇葉湯으로 마찰하는 법이 있다. 通利시키는데는 犀角地黃湯을 삶아서 붙이는 법이 있다. 그 외에 傷寒의 兼症과 變症에 대해 각각 外治法이 모두 갖추어 있다. 무릇 熱病에 응용하는 藥은 《傷寒論》에 모두 있다. 그러하니 《傷寒論》에 없는 경우는 《傷寒論》에 이미 있는 경우로 類推한다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러하므로 溫病을 치료하는 外治法은 傷寒의 外治法을 따라 미루어 생각하면 된다. 혹자는 溫病은 傳病이 신속하여 膏藥의 藥力이 미칠 바가 못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湯劑나 丸劑는 하루에 수 차례 복용하지 못하나, 膏藥은 하루에 수 차례 사용할 수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는 의사가 靈敏하며 기술이 敏捷한데 달려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일 뿐이다. 오직 外治하는 법이란 내가 만드는 것으로 비롯되는 것이니, 方을 檢討하는 것으로 병을 치료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치이다. 慣習을 깨고 先入見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총명하고 이치에 통달한 사람에게 바라는 바이다.

1) 傷寒이 溫病으로 傳變하는데 간혹 藥을 달여서 湯藥을 만드는데 이미 症狀이 變할 수 있으니, 의사가 어찌 기다릴 수 있겠는가? 膏는 미리 精製하여 준비할 수 있으니, 옛 사람들이 먼저 葛根으로 陽明病에서 傳變하는 것을 막고 蒼朮로 太陰病을 安靜시키는 것과 비교해서 더욱 확실하다.

〈注釋〉

① 搨는 떨어뜨린다는 의미이다. 搨浴法은 藥物을 달여서 湯液을 만들어 局部나 全身을 씻거나 담그거나 적시는 法을 말한다. 여기서의 搨漬의 의미로 局部를 湯液으로 적시는 것을 말한다.

② 拍은 두드리다라는 의미로 撲과 같다. 撲粉

法은 藥物을 갈아서 細末하여 皮膚 상을 두드리면 바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堯花水를 사용하여 피부 상에 두드리면 바르는 것을 말한다.

③ 搨는 비나 붓으로 쓸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膽汁, 靑黛水 등을 붓이나 술에 적셔서 환부에 바른다는 의미이다.

④ 噉은 물을 뿜는다는 의미이다.

⑤ 搨은 덮어씌우다는 의미이다.

⑥ 擦法과 같다.

⑦ 붙들리다. 사로잡히다.

〈原文〉

古膏除太乙 觀音 霏雲外, 治四時傷寒有兩萬靈膏, 治脾胃有金絲萬應膏, 治勞損有五養膏, 又有暖臍膏 涌泉膏. 可見內症用膏, 古原有是法. 特其藥龐雜, 并治及外症, 與湯斗之純一者不同. 醫家多訾之. 而餌^①食者, 遂概以爲膏藥不足恃. 至于服藥無效, 事勢危急, 始用膏藥, 安能有濟? 此古膏之所以不行也. 王晉三論《本事 四神丸方》云: “刪去背謬之藥, 復以相須相使之品, 自奏奇功. 此眞古之功臣.” 安得今更有晉三其人者, 爲古膏一開生面^②, 而并創制數十種膏方 藥方爲世指南也^③.

1) 葉天士有《臨證指南》, 外治得更有高手指南, 則臨症亦有所遵行矣.

〈解釋〉

옛부터 사용한 膏 중에 太乙膏, 觀音膏, 霏雲膏 외에 四時傷寒을 치료하는 두개의 萬靈膏와 脾胃를 치료하는 金絲萬應膏와 勞損을 치료하는 五養膏가 있고 또 暖臍膏와 涌泉膏가 있다. 이렇듯 內症에 사용한 膏들을 볼 수 있으니, 옛부터 원래 이렇게 膏로 內治하는 법이 있었다. 특히 膏에 사용된 약들이 雜多하고 또한 兼하여 外症을 치료하였으니, 湯藥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과는 달라서, 의사들이 이를 많이 비난하고, 병에 걸렸을 때 服藥을 하는 사람들은 이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膏藥을 믿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약을 복용하고도 효과가 없어 병세가 위급해지고 나서야 膏藥을 사용하니 어찌 능히 병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옛날에 膏가 널리 유행하지 못한 이유이다. 王晉三이 許叔微의 《本事方》 중 四神丸에 대해 말하기를 “그릇된 약을 없애고, 다시 相須相使하는 약을 더하여 저절로 기묘한 효력이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古方 중의 一代 功臣이다.”라고 하였다. 어디에서 지금 다시 王晉三과 같은 사람을 얻어 옛 膏에 새로운 국면을 열고 수십 종의 膏方과 藥方을 새로이 만들어 세상에 指針이 되게 하겠는가?

1) 葉天士의 《臨證指南》이 있어, 外治法이 다시 高名한 醫師의 指針을 얻게 되니 임상에서 또한 따를 바가 있다.

《注釋》

- ① 諸本에는 “耳”로 잘못되어 있다.
- ② 새로운 국면을 열다.

《原文》

膏藥貼法, 不專主一穴. 如經治熱病五十九刺^①. 頭上五行, 行五者以越諸陽之熱逆也. 頭中行¹⁾ 上星 顛會 前頂 百會 後頂五穴也. 兩傍²⁾ 承光 通天 腦蓋 玉枕 天樞十穴也. 又兩傍³⁾ 臨泣 目窓 正營 承靈 腦空十穴也. 天杼 膺命⁴⁾ 缺盆 背俞⁵⁾ 八者, 瀉胸中之熱. 氣衝 三里 巨虛上 下廉八者, 瀉胃中之熱. 雲門 鬲骨⁶⁾ 委中⁷⁾ 髓穴⁸⁾ 八者, 瀉四肢之熱. 五臟俞傍五十者, 瀉五臟之熱. 共五十九者, 所以分殺其勢也. 症雖重, 得此分殺其勢, 其病亦滅. 膏藥治太陽經外感, 初起以膏貼兩太陽⁹⁾ 風池 風門¹⁰⁾ 臚中穴¹¹⁾, 更用藥敷天庭 熏頭面腿瀉, 擦前胸 後背 兩手心 兩足心 皆取汗, 分殺其勢, 卽從刺法推出. 諸經可倣此推¹²⁾. 若臟腑, 則視病所在, 上貼心口; 中貼臍眼, 下貼丹田, 或兼貼心俞與心口對, 命門與臍眼對, 足心與丹田應. 外症除貼患處外, 用一膏貼心口, 以護其

心; 或用開胃膏使進飲食, 以助其力. 可以代內託治外症, 亦不必服藥者以此¹³⁾.

- 1) 督脈
- 2) 膀胱
- 3) 膽經
- 4) 卽中府穴
- 5) 卽風門穴
- 6) 卽肩穴
- 7) 卽腿瀉^②穴
- 8) 卽腰俞穴
- 9) 頭痛本穴
- 10) 疏通來路
- 11) 于心取汗
- 12) 瘧疾 血症, 均有截法.
- 13) 外治以飲食爲填補

《解釋》

膏藥의 貼法은 단지 하나의 穴에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內經》에서 熱病을 치료하는 오십 아홉 개의 針刺部位를 말하였는데, 머리 윗 부위에 다섯 개의 經絡이 흐르고, 이 다섯 經絡의 다섯 穴을 사용하는 것은 諸陽經의 熱이 上逆하는 것을 빼내는 것이다. 머리의 中間을 흐르는 督脈에 上星 顛會 顛頂 百會 後頂 등 다섯 혈자리가 있고, 兩傍의 太陽經에 承光 通天 腦蓋 玉枕 天樞 등 열 개의 혈자리가 있고, 그 兩傍의 膽經에 臨泣 目窓 正營 承靈 腦空 등 열 개의 혈자리가 있다. 天杼 中府 缺盆 風門 등 여덟 개의 혈자리는 胸中の 熱을 瀉하는 곳이고, 氣衝 三理 上巨虛 下巨虛 등 여덟 개의 혈자리는 胃中の 熱을 瀉하는 곳이다. 雲門 肩髃 委中 腰俞 등 여덟 개의 혈자리는 四肢의 熱을 瀉하는 곳이다. 心俞 肝俞 脾俞 肺俞 腎俞 등 膀胱經의 五臟俞 열 개의 혈자리는 五臟의 熱을 瀉하는 것이다. 오십 아홉 개의 혈자리가 모두 (그 병의) 氣勢를 나누어 없애는 의미이다. 증상이 비록 중하다지만 이렇듯 그 기세를 나누어서

없었다면 그 병 또한 짐차 감소할 것이다. 膏藥이 太陽經의 外感病을 치료하는데, 初期에는 膏藥을 兩側의 太陽 風池 風門 臑中에 붙이고, 다시 약을 天庭에 붙이고, 머리 얼굴 오금에 薰蒸하고, 가슴 등 兩手心, 兩足心을 문질러 그 기세를 나누어 없애니, 곧 針刺法에서 미루어서 나온 것이다. 모든 經絡에 이렇게 類推할 수 있다. 만약 臟腑에 病이 있다면 病이 있는 곳을 살펴서, 병이 上焦에 있으면 心口, 병이 中焦에 있으면 臍眼, 병이 下焦에 있으면 丹田에 붙이는데, 혹은 兼하여 心俞와 心口에 相對되게 붙이거나 命門과 臍眼에 相對되게 붙이거나 足心과 丹田에 相應되게 붙인다. 患部에 膏를 붙여 外症을 없애는 것 외에도, 一膏를 心口에 사용하여 이로서 心을 保護하거나 혹은 開胃膏를 사용하여 음식 먹는 것을 促進시켜 그 正氣를 돕는다. 膏藥으로 內治法으로 外症을 치료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으니, 또한 服藥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 督脈을 말한다.
- 2) 膀胱經을 말한다.
- 3) 臑經을 말한다.
- 4) 中府穴을 말한다.
- 5) 風門穴을 말한다.
- 6) 肩髃穴을 말한다.
- 7) 腿髁穴을 말한다.
- 8) 腰俞穴을 말한다.
- 9) 頭痛을 치료하는 穴이다.
- 10) 오는 經路를 疏通시킨다.
- 11) 心으로 부터 맘을 내게 한다.
- 12) 瘧疾과 血症에 모두 截法이 있다.
- 13) 外治에서는 飲食으로 補를 한다.

〈注釋〉

① 《素問 水熱穴論》 19)에 “岐伯이 말하기를 頭上에 다섯 줄에 줄마다 다섯 穴은 諸陽의 熱이 上逆하는 것을 越하게 하며, 大杼 臑俞 缺盆 背俞이

여덟 穴은 胸中の 熱을 瀉하며, ..., 五臟俞의 길 다섯 穴 즉 일 개의 穴은 五臟의 熱을 瀉하니, 五十九穴은 모두 熱을 治療하는 左右의 穴입니다.(岐伯曰 頭上五行行五者, 以越諸陽之熱逆也, 大杼臑俞缺盆背俞此八者, 以瀉胸中之熱也, 凡此五十九穴者, 皆熱之左右也.)”라 하였다.

② 오금을 말한다. 즉 委中穴.

〈原文〉

湯液內治猶在閤^①室也, 膏藥外治猶在大庭廣衆之地也. 閤室人所不見, 大庭廣衆之地人皆見之. 故內治可蒙, 而外治不可蒙. 然易于補過在此, 不蹈重咎亦在此. 彼貧無所恃, 不得已欲藉醫以謀生者, 讀書既不多, 閱歷又未深, 以膏藥療治, 安拙于己, 推能于人, 兩無所負. 非獨存心^②宜爾, 且以保名, 且以保財, 且以保身, 且以保嗣^③. 有以一膏起家者, 資亦不必多也.

〈解釋〉

湯液으로 內治하는 것은 마치 暗室에 들어있는 것과 같고, 膏藥으로서 外治하는 것은 드넓은 마당에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것과 같다. 暗室에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드넓은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內治法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外治法은 그렇지 않다. 그러하므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쉬운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릇됨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이유도 역시 여기에 있다. 저 貧困하여 기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醫術을 빌어 生計를 도모하는 자가 독서한 것도 많지 않고 경험 또한 깊지 않으나, 膏藥치료는 서투르게 자신에게 사용하여도 안전하고, 미루어 능숙하게 타인을 치료하니 모두 부담될 것이 없다. 비단 마음을 먹을 뿐 아니라 마땅하게 시행한다면, 가히 이름과 재물과 몸을 보존할 수 있고 子孫의 生計도 보존할 수 있다. 膏 하나로 실림을 일으키는

자는 일천 또한 많이 필요치 않다.

〈注釋〉

- ① 暗.
- ② 마음을 먹다.
- ③ 자손후대.

〈原文〉

膏藥多驗于窮苦之人，一則無力延醫，信任不得不專，二則平時不服藥故也。富貴之家，一有微恙，名賢列座，親朋省問^①，各舉所知。且蔘 芪視爲常食之品，何能遽以膏藥爲是？然當百藥不效之時，諸醫束手^②告退^③。而膏藥能用之有驗，則亦易于傳播。醫者但當盡其心可耳。惟膏藥修合無人見，不可驚良雜苦^④，自失其眞。更不可乘人之急^⑤，挾貨居奇^⑥，以蹈惡習。若能于窮民陰行其德，不以財論，尤爲造福。

〈解釋〉

膏藥은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效驗이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의사를 부를 財力이 없어 부득이하게 膏藥을 믿지 않을 수 없고, 들쭉는 평소에 服藥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귀한 사람들은 하나의 자그만 질병이 생기더라도 名醫를 줄줄이 부르고 친구들이 問安을 와서各自的 藥을 바를 이야기한다. 또한 人蔘 黃芪 같은 것을 평상시에 자주 먹는 음식같이 여기니, 어찌 갑자기 膏藥이 옳다고 하여 치료법으로 삼겠는가? 따라서 많은 藥을 써도 效험이 없는 때가 되어서, 모든 의사들이 束手無策으로 물러나야 膏藥을 사용할 수 있어 效험을 보게되어 쉽게 膏藥의 效과가 알려지게 된다. 단지 의사는 마땅히 그 마음을 다할 뿐이니, 膏藥을 修治하고 配合할 때 타인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 雜多한 藥을 섞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그 진실됨을 잃는 것이다. 또한 남의 위급한 틈을 타서 돈을 노려 물건을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악습을 행하는 것이

다. 만약 능히 가난한 사람에게 陰德을 행하고 재물을 논하지 않는다면, 더욱 복을 쌓을 것이다.

〈注釋〉

- ① 省問: 안부를 묻다.
- ② 束手無策이다.
- ③ 사퇴하다.
- ④ 藥을 팔 때에 좋지 않은 것으로 좋은 것을 대신하거나 가짜인 것을 진짜로 대신하다.
- ⑤ 남의 위급함을 틈타서 해를 준다.
- ⑥ 폭리를 노려서 희귀한 상품을 팔지 않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다.

〈原文〉

余所制膏方，惟清陽膏 散陰膏 金仙膏 變膏 催生膏最驗，已刊附“駢文”之後。產固非病，生亦不必催，有膏以備生而病者用也。往往產婦二三日後，目不得瞑，心中煩亂，火升于上，兒愈不下。貼此膏後，無不自覺腹中溫暖，即時閉目安睡，睡醒即生。夫用純陰之膏，何以能溫暖？蓋陰氣外泄，得陰膏而陽回于內，故腹中溫暖也。此卽介以酒陽之法也。睡者六字眞言^①之一，能睡則陰氣自復，交骨亦開矣。且睡則兒得休息，轉身亦有力矣。造化自然之道，仍以自然還之，原不待膏藥。特此時氣不行陰，非借膏藥之力，斷不得睡。又非以膏藥安產婦之心，而令其睡，以俟藥轉亦不得睡。此中有醫意焉，所以歷試俱驗。曾見有難產者，或以硝黃下之，或以蓖麻等拔之，卒無一效。而臨死時自揭其衣者有之，此陽氣外盡之故也。醫理精微，在人靜悟，聊舉此方，質諸當世，以見膏藥可以自造，不必古人曾有此方也。其餘尚有靈罪膏 泰山石刻膏 七寶遇仙膏 歸砂膏 延齡膏 清補膏 溫補膏 傷風發散膏 傷寒發散膏 三時感冒雙解膏 東丹溫症解毒膏 內傷退熱膏 熱結膏 冷積膏 火鬱膏 陽症瀉熱膏 陰症逐寒膏 中寒回陽膏 陰痧救急膏 健脾膏 清胃膏 溫胃膏 和胃膏 清肺膏 清心化痰膏 養心安神膏 清肝膏 養肝膏 平肝膏 溫膽膏 三一柴胡膏 清腎膏 溫

腎膏 保精膏 種玉膏 潤腸膏 滋腸膏 通治風熱膏 通治濕熱膏 通治寒濕膏 滲濕膏 辟濕膏 開鬱膏 理營膏 止衄膏 行瘀膏 控涎膏 消脹膏 滅渴膏 斂汗膏 開腦膏 錫痺膏 化痞膏 瘧疾膏 痢疾膏 婦人調經膏 固經膏 安胎膏 衛產膏 小兒清熱膏 消食膏 定驚膏 補脾膏 化痰膏 平疝膏 殺蟲膏 共數十種, 皆本古方增減爲之. 惟皆新制, 試用未幾, 未能自信, 姑^②存其名, 如文之有題, 能者可自造焉.

〈解釋〉

내가 만든 膏 中에 오직 淸陽膏, 散陰膏, 金仙膏, 嬰膏, 催生膏 등이 가장 효험이 있는데 本書의 뒷부분에 덧붙여 이미 간행하였다. 催生膏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아이를 낳는 것은 진실로 병이 아니며 또한 아이를 낳는 것을 재촉할 필요도 없으나, 催生膏는 아이를 낳으면서 병이 생기는 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간혹 產婦가 出産에 臨한지 이 삼일 후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煩亂하여 화가 위로 솟아 아이가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催生膏를 붙이면 腹中에 따뜻한 감각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고, 즉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고, 잠을 깨서는 곧 아이를 낳는다. 무릇 純陰의 성질을 지닌 膏를 사용하여 어찌 따뜻하게 할 수 있는가? 무릇 陽氣가 밖으로 빠져 나오는 경우에는 陰의 성질을 가진 膏를 사용하여 陽氣를 안으로 돌리면 腹中이 따뜻해지게 된다. 이것이 陰虛火動된 것을 潛陽을 시키는 법이다. 잠을 자는 것은 產科의 六字眞言 중의 하나이니, 잠을 잘 수 있게 되면 陰氣가 스스로 회복되고 골반이 또한 열리게 된다. 또 產母가 잠을 자게 되면 胎兒가 휴식을 얻게 되니, 出産 時에 胎兒가 몸을 돌리는 것 또한 힘이 있게 된다.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조화로운 자연의 도는 자연스럽게 되돌려 놓는 것이니, 원래 膏와 藥의 효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단지 이렇듯 陽氣가 陰에 행하지 않아 陰虛火動된 경우에는 膏와 藥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결코 잠을 자지 못한다. 또한 膏와 藥으로 妊産婦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을 이루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藥의 효과로 胎兒가 몸을 돌려 나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의사의 뜻이 있는 것이니, 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모두 효과가 있었다. 일찍이 難産하는 사람을 보고, 或者는 芒硝와 大黃으로 瀉下를 시켜보기도 하고, 或者는 蓖麻子 등으로 貼內어 보기도 하였으나 모두 효과가 없었다. 죽을 때가 다 되어 스스로 자신의 옷을 풀어 헤치는 자는 양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의학의 이치가 정밀하니, 사람이 스스로 자세히 이를 깨닫고 催生膏과 같은 方을 근거로 하여 당대의 명의학에게 묻는다면, 膏藥을 능히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 古人이 이미 方을 사용하였는가를 살필 필요가 없다. 내가 靈霏膏 泰山石刻膏 七寶遇仙膏 齡砂膏 延齡膏 淸補膏 溫補膏 傷風發散膏 傷寒發散膏 三時感冒雙解膏 東丹溫症解毒膏 內傷退熱膏 熱結膏 冷積膏 火鬱膏 陽症蕩熱膏 陰症逐寒膏 中寒回陽膏 陰痧救急膏 健脾胃淸胃膏 溫胃膏 和胃膏 淸肺膏 淸心化痰膏 養心安神膏 淸肝膏 養肝膏 平肝膏 溫膽膏 三一柴胡膏 淸腎膏 溫腎膏 保精膏 種玉膏 潤腸膏 滋腸膏 通治風熱膏 通治濕熱膏 通治寒濕膏 滲濕膏 辟濕膏 開鬱膏 理營膏 止衄膏 行瘀膏 控涎膏 消脹膏 滅渴膏 斂汗膏 開腦膏 錫痺膏 化痞膏 瘧疾膏 痢疾膏 婦人調經膏 固經膏 安胎膏 衛產膏 小兒清熱膏 消食膏 定驚膏 補脾膏 化痰膏 平疝膏 殺蟲膏 등 수십 종을 모두 古方에 근거를 두고 加減하여 만들었다. 단지 모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상에서 시도해 본 것이 많지 않아 자신 할 수는 없지만, 잠시 膏의 이름을 기억하여 두고 마치 文章에 있는 題目처럼 여긴다면, 재능이 있는 자는 능히 스스로 膏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注釋〉

- ① 六字眞言은 “睡, 忍痛, 慢臨盆”을 말한다.
- ② 잠시.

〈原文〉

余所著“駢文”，因文以立法，自比于酒經 茶經 書譜 硯譜之例，別爲膏藥錄耳。所以苦心求索者，欲其句句皆可見法，不徒貴症皆各有方¹⁾。而或嫌未分門類²⁾，方不盡可用，語亦過深，此誠所短也。余擬于文中，摘其精方，更博采他書，益取其精，先例辨症，次論治，次用藥。每文以膏爲主，附以點³⁾ 嗜⁴⁾ 熏 擦 熨 烙⁵⁾ 糝 敷之藥佐之²⁾。倣王氏⁶⁾《古方選注》，王氏⁶⁾《醫方集解》體爲之注解，并詳所屬經絡穴道。眉目⁷⁾既分，義理亦出，取病之法亦確乎有據。而《駢文》作爲自序，總其大要，見淺見深，聽之觀者。衰年精力不逮，願俟諸後之君子焉。濟人之心，我知天下必有同也³⁾。

1) 外治古無書，故所重在分別立法以示後，與刻醫方不同。

2) 膏除通治者別爲一門外，如傷寒在表，則用薑葱等膏位主，附以麻黃散點眼 川芎嗜 鼻 香附擦背 紫蘇熏腿灣諸發汗藥佐之。入裏，則用萬靈等膏爲主，附以田螺硝石敷法以代五苓，大黃枳實熨法以代承氣諸下藥佐之是也。舉此爲例。

〈解釋〉

내가 《駢文》이라 적은 바는, 글로서 법을 세웠기 때문에 스스로 酒經 茶經 書譜 硯譜 등의 예에 비교해본다면 단지 膏藥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가 고심하여 모색한 바는 구절 구절마다 모두 그 법을 나타내려는 것이었고, 증상마다 모두 方을 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或者는 病症을 나누어 분류하지 않았고, 수록된 方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글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비난하니 이는 진실로 이 책의 短點이다. 내가 《駢文》의 내용 중에 意圖한 것은 精髓가 되는 方을 뽑고, 다시 여기에 여러 서적에

서 널리 모아서 그 精華를 취하는 것이었다. 먼저 症을 分別하여 나열하고, 그 다음에 治法을 論하고, 그 다음에 用藥을 두려하였다. 또한 各各의 門은 膏를 위주로 하고, 다시 덧붙여 點 口畜 熏 擦 熨 烙 糝 敷하는 藥을 두었으며, 王晉三의 《古方選注》과 汪昂의 《醫方集解》의 格式을 모방하였고, 여기에 注解를 더하고 더불어 그 소속 經絡과 血을 상세히 하였다. 大綱을 이미 나누었고 그 이치 또한 밝혔으니 병을 치료하는 방법 또한 확실히 근거가 있게 된다. 그리고 《駢文》에 自序를 지어 그 大要를 總括하여 깊은 것과 얕은 것을 드러내어 읽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내가 늙어 이미 힘이 미치지 못하니, 원하건데 뒤에 오는 뛰어난 인재를 기다린다. 사람을 치료하는 마음은 천하와 내가 반드시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옛날에는 外治에 대한 醫書가 없었기 때문에, 分別하여 法을 세우는 것을 重視한 것이 뒤의 本文에 나타난다. 엄격한 醫方과는 같지 않다.

2) 通治하는 것에서 제외된 膏들은 별도로 하나의 門을 만들어 따로 두었다. 예를 들어 傷寒의 表症에 生薑 葱白 등의 膏를 爲主로 하고, 덧붙여 麻黃散으로 點眼하거나 川芎으로 口畜 鼻하거나 香附子로 등을 摩擦하거나 紫河車로 오금을 熏蒸하는 것 등 發汗하는 藥들을 補充해 놓았다. 病邪가 안으로 들어온 경우에 萬靈膏 등의 膏를 爲主로 하고, 덧붙여 田螺硝石의 敷法으로 五苓散을 대신하거나 大黃과 枳實로 熨法을 하는 것으로 承氣湯 등의 瀉下하는 藥들을 대신하는 것을 보충해 놓았다. 이것을 예로 든다.

〈注釋〉

① 《理論駢文》의 正文은 1卷으로 되어 分類되어 있지 않고, 目錄이 없다. 단지 正文의 自注에 “以上徵引古方, 首舉傷寒者, 傷寒外治別于諸醫家書, 一篇所重, 在此遞及中風, 以至六淫爲一段; 臟腑醫

之本, 特爲一段 ; 身體承臟腑合爲一段 ; 五官聽五臟, 故亦列之于內也 ; 婦科兒科各爲一段 ; 痘疹承兒科列之末段, 以與傷寒首尾相應, ... , 共分六段”이라 하여 분류에 대한 언급을 해놓았다.

② 点法은 湯液 등을 直接 皮膚에 點滴하는 法이다. 滴藥法이라고도 한다.

③ 諸本에는 “搗”으로 잘못 되어있다.

④ 여러가지 모양의 鐵器를 加熱하여 患部를 지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加熱한 藥物로 患處를 점질하는 것을 말한다.

⑤ 王晉三.

⑥ 汪昂.

⑦ 문장의 요점이나 요강.

《原文》

又各條皆數年來閱歷之言, 余初亦未敢謂外治必能得效, 逮親驗萬人, 始知膏藥治病無殊湯藥. 用之得法, 其響立應, 衰老稚弱尤非此不可. 今人遇病, 不問大小輕重, 輒云服藥, 衆口一辭, 牢不可破, 有雖欲不服而不能者矣. 此其故亦由于未知外治之法耳, 未知外治法之能得效耳. 間有不效者, 乃看症未的, 非藥之不可效也. 然即不效, 亦未至成壞症, 猶可易他法以收其效. 茲特將平日讀書臨症者錄而出之, 以爲欲學外治者之一助. 自問不同門外揣摩^①, 空言欺世. 其中書不盡言, 言不盡意, 在人引伸^②觸類^③, 自爲推廣, 此其大略也. 至于道之不同, 固有不必強相謀者. 吾惟憫生命之多枉^④, 自抒愚者之一得而已. 總之, 內外治皆足防世急, 而以外治佐內治, 能兩精者, 乃無一失. 吾爲醫家計, 似不可不備此外治一法. 若謂吾薄內治, 則吾豈敢^⑤?

1) 內科無用膏藥, 未嘗非計, 病家亦甚樂從. 吾鄉近已有行之者.

《解釋》

오른쪽의 각 條文은 모두 수 년 동안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다. 나도 처음에는 역시 外治法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내가 직접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여 효험을 보고 나니, 비로소 膏藥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湯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약을 사용하는데 法을 얻으니, 藥을 쓰면 病이 이에 應한다. 쇠약한 노인과 어린이는 더우기 外治法이 아니고서는 안된다. 요즘의 사람들이 병을 만나면 병의 크고 작음과 가뭇고 증한 것을 묻지 않고 服藥을 시키는데 모두 입을 모으니, 이러한 견해가 견고하여 쥔수가 없어 비록 약을 服用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外治法을 알지 못하고, 外治法이 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간혹 外治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진단이 정확하지 못해서 이지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곧 효과를 보지 못한다하더라도 壞症을 이루는데까지는 미치지 않으니, 다른 治法으로 바꾸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내가 평소에 책을 읽고 임상에서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내놓으니, 이것이 外治法을 공부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스스로에게 문외한이 추측하여 허황된 말로 세상사람을 속이는 것과 과연 다른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 이러한 가운데 문자로서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말은 또 사람의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를 보고서 다른 것을 알게 하고자 하였으니, 스스로 넓혀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大略이다. 그 道에 이르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서로 도모할 필요는 없다. 내가 오직 많은 생명이 제 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어리석은 자가 얻은 하나의 깨달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일 뿐이다. 총괄하면 內治法과 外治法은 모두 세상의 급한 병을 구하기에 충분하고, 外治法은 內治法을 補助할 수 있으니, 內治法과 外治法에 모두 精通하게 된다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醫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이 外治法을 없애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였으나, 만약 내가 內治法을 가
볍게 여긴 것처럼 사람들이 말한다면 내가 여찌
감당하겠는가?

1) 內科에 兼하여 膏藥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患者들 역시 매우 즐기
면서 치료에 따른다. 내가 근래에 鄉里에서 이미
시도해 본 것이다.

《注釋》

- ① 추측하다. 헤아리다.
- ② 원래의 뜻을 확대하다. 원래의 뜻에서 파생
된 뜻이 생기다.
- ③ 하나로부터 추리하여 다른 것을 알다.
- ④ 억울함, 怨恨. 誤治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原文》

《集證》二卷詞出. 《蘭臺軌范》云: “有人專用丹
溪摩腰方¹⁾, 治形體之病, 老人虛人極驗. 其術甚行,
或加入倭硫磺^① 人蔘 鹿茸 沈香 水安息^②, 或單用麻
油 黃蜡爲丸, 如胡桃大, 烘熱摩腰, 俟腰熱扎好, 一
丸可用數次. 若腹中病也可摩.” 此見外治之法, 古未
嘗不行也. 又王晉三云: “喉風急症, 舍吹鼻通肺之外
治, 別無他法.” 陳修園于鶴膝風症云: “有雷火針^③及
陳芥子末 葱涕^④ 薑汁調塗外治二法, 不可不知.” 此
見外治之法, 今亦重之. 又《匯參》^⑤云: “金沸草散
原治傷寒痰嗽, 或以熏舌脹遂愈.” 此見內治方可移爲
外治也, 皆證也. 《輯遺》四卷詞出²⁾.

- 1) 方載篇中
- 2) 篇中挂漏^⑥之方, 與友朋寄示良方, 皆載入卷內,
以備好事者重刊時酌換. 方不必多, 法宜多也.

《解釋》

내가 별도로 《集證》 二卷을 뒤이어서 내놓았
다. 《蘭臺軌范》에서 말하기를 “丹溪의 摩腰方을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形體의 질병을 치료한 사람
이 있는데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에게 아주 효과가
있었다. 그 방법이 많이 유행하였는데, 或者는 倭
硫黃 人蔘 鹿茸 沈香 安息香 등을 더 넣거나, 或
者는 麻油만을 사용하여 黃蜡로 호도알 만한 크기
로 丸을 만든 후 가열하여 허리를 문지르고, 허리
가 열이 나기를 기다려 붙여두면 좋다. 하나의 丸
으로 수 차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腹中에 병이
있더라도 摩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外治法
을 보면, 옛부터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王晉三이 말하기를 “喉風의 急症에 코에 약을 붙
어넣어 폐를 통하게 하는 外治法 外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라고 하였다. 陳修園은 鶴膝風症에
서 말하기를 “雷火針과 오래된 白芥子末 葱汁 薑
汁을 섞어 바르는 두 가지 外治法을 반드시 알아
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外治法의 사용에서
보여지듯이, 요즘에도 역시 外治法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匯證匯參》에서 말하기를 “金沸草散
은 원래 傷寒의 痰嗽를 치료하는 것인데, 혹 이
약으로 舌脹에 熏法을 사용하여 낫게 하였다.” 하
였는데, 이것으로 보건데 內治方을 능히 外治法으
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예가 外
治法이 능히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 외에 《輯遺》 四卷을 앞으로 출간하려 한
다.

- 1) 方은 篇中에 실었다.
- 2) 篇中에 많이 빠뜨린 方과 친구들이 전하여
알려준 좋은 方들을 모두 四卷 내에 실을 것이며,
이로서 有益한 것을 갖추어서 重刊 시에 고려하여
고치려한다. 方은 많을 필요가 없고, 治法은 마땅
히 많아야 한다.

《注釋》

- ① 일본에서 생산된 硫黃.
- ② 페르시아나 安南에서 생산된 安息香.
- ③ 즉 雷火神針을 말한다.

- ④ 葱汁.
- ⑤ 《喉證匯參》, 明代에 張景岳 등이 撰한 책.
- ⑥ 하나를 인용하고 만 개를 빠뜨리다. 즉 빠뜨린 것이 대단히 많다.

에 관한 說明, 外治法의 理論의 根據, 外治法의 使用原則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理論駢文》에 대한 설명

1) 著作動機

吳師機는 《略言》의 첫머리에서 著作을 하게된 이유를 옛 것에 어긋나지 않고 지금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 膏藥이라 판단하였고, 臨床을 통해 이를 사용하여 많은 효험을 본 후에 여러 書籍의 方을 모아 《理論駢文》을 著述하여 外治法의 理致와 內治法의 理致가 같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吳師機의 生涯를 살펴보면 外治法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던 時代的 狀況을 살펴볼 수 있는데, 《理論駢文》의 吳序²³⁾를 보면 太平天國의 亂으로 避亂 중에 膏藥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戰亂으로 인한 困窮한 狀況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居住地域의 氣候와 住居環境으로 인해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膏藥治療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秦之東北鄉曰俞家堍, 吾兄與余奉母避亂之所居也, …, 兄在鄉自製膏藥以爲施治, …居湫陰卑濕之地, 而又時爲寒暑所侵, …往往困于力之無如何, 委而不治者半. 或力能治矣, 數醫而無驗, 亦自惜其藥之徒費而不復治…謝曰 吾謁所謂高手者多矣, 此獨不煩飲藥, 不待切脈, 竊以爲療之難, 而竟得愈之易也. …凡遠近來者, 日或一二百人, 或三四百人, 皆各以時聚.) 이러한 상황에서 外治法을 사용한 것은 外治法의 長點을 느꼈기 때문이라 여겨지는데, 略言 속에는 外治法이 가지는 長點에 대해서 많은 記述들이 보인다. 또한 이러한 外治法의 長點은 곧 內治法의 短點과 相通한다. 또한 이러한 外治法의 長點과 效果로 인해 吳師機는 患者들의 호응 속에서 많은 臨床의인 經驗 쌓아 理論의인 것을 實在를 통해 검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總括 및 考察

吳師機(1806-1886)는 清代의 醫家로 名은 安業, 字는 尙先이다. 浙江省의 錢塘人으로 일찍이 楊州에 居하였다. 吳師機가 著述한 《理論駢文》은 일명 《外治醫說》이라고도 하며, 一冊으로 分卷되지 않았다²⁰⁾. 《理論駢文》이란 이름은 子華子의 글에서 “醫者理也, 藥者淪也”에서 뜻을 취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駢文은 本文의 文體를 말한다. 本書는 首卷인 略言, 續增略言, 正文, 膏方, 治心病方 등의 다섯 부분으로 構成되어있으며, 最初의 外治法 專門書籍으로 膏藥을 위주로 다양한 外治法을 수록하였다²¹⁾. 또한 外治法의 理論的인 근거제시 및 傳統의인 民間簡易療法의 收集과 整理에 있어 醫史學的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는 著作이나, 駢文으로 기록되어있어 보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널리 전파되지 못하였고 영향도 크지 못하였다²²⁾.

《略言》은 《理論駢文》의 首卷으로 수록된 外治法의 總論이며, 著者가 《理論駢文》을 지은 후 自序를 兼해 理解를 돕기 위해 總論의 형태로 적어 덧붙인 글이다. 自序 및 總論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病症이나 治療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글을 통해 著者는 著作動機, 外治法의 長點, 外治法의 理論的 根據, 外治法의 使用方法, 外治法을 사용하며 겪은 실재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略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理論駢文》

2) 《理論駢文》의 形式.

《理論駢文》의 한 卷의 책으로 되어있고, 分類나 目錄이 없다. <略言>에서 그는 이것이 《理論駢文》의 短點임을 指摘하였다. 그리고 本書에서 먼저 精髓가 되는 方을 뽑아서 여기에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더하고, 다음에 이것을 辨症, 治法, 用藥으로 나누고, 各各의 門은 膏를 위주로 하여 기타 外治法을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格式은 王晉三의 《古方選注》과 汪昂의 《醫方集解》의 格式을 모방하여, 여기에 注解를 더 하였다고 하였다. 물론 型式에 있어 吳師機가 스스로 分類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短點이라고 지적하였으나, 自注를 통해 “以上徵引古方, 首舉傷寒者, 傷寒外治別于諸醫家書, 一篇所重, 在此遞及中風, 以至六淫爲一段; 臟腑醫之本, 特爲一段; 身體承臟腑合爲一段; 五官應五臟, 故亦列之于內也; 婦科兒科各爲一段; 痘疹承兒科列之末段, 以與傷寒首尾相應, ... , 共分六段” 라하여 傷寒, 六淫, 臟腑, 五官, 婦人科와 小兒科, 痘疹 등을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外治法의 理論的 根據

<略言>을 통해 吳師機는 外治法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몇 가지로 설명하였다.

1) 歷史的인 側面

醫學에 있어 病邪가 밖에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外治法이 생겼다고 하였다. 또 이미 《內經》에서 外治法을 통해 寒痺와 口眼喎斜를 치료하여 그 根源이 오래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湯液을 重興시킨 《傷寒論》에서 나타나는 桂枝湯을 예로 들어 桂枝湯의 觀點이 이미 《內經》에서 사용한 外治法의 觀點에 그 根源이 있다고 하여, 지금에 湯液을 外治法으로 사용하는 것이 옛 先人들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그

리고 葉天士가 內治法에 사용하는 方을 外治法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 등 先人들의 예를 들어 外治法의 근거를 삼고 있다.

2) 理論的인 側面

理論的인 側面에서 一貫되게 吳師機가 強調하는 것은 “外治之理, 卽內治之理; 外治之藥, 亦卽內治之藥, 所異者法耳.”라하여 外治法의 理致와 內治法의 理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理法方藥 중에 다른 것은 治療方法일 뿐이니, 診斷, 病理, 方劑 등에 모두 適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外治必如內治者, 先求其本. 本者何? 明陰陽, 識臟腑也.”라 하여, 外治를 하는데 있어서 먼저 陰陽과 五臟六腑의 生理와 病理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內經》과 《傷寒論》 《金匱要略》 등의 書籍과 이후 名醫들의 著作들을 검토하여 이를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現實的인 側面

吳師機는 內治法의 短點과 外治法이 가지는 長點이 있으니 內治法과 外治法의 相互補完이 반드시 必要하다고 주장한다. 內治法의 短點는 첫째는 치료비가 많이 들고, 둘째는 醫理에 어두운 의사들의 誤治로 인해 害가 크고, 셋째는 服藥을 거부하는 환자나 服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쩔 수 없다는 점을 들고있다. 外治法의 長點은 곧 內治法의 短點과 상통하니,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고, 둘째로는 誤治로 인한 弊害가 적을 뿐 아니라 誤治를 해도 곧 方法을 바꾸어 치료할 수 있으며, 셋째로 內治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후 吳師機는 內治法과 外治法이 모두 病을 치료할 수 있으니, 길이 다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精通하여 外治法으로 內治法을 보충한다면 完전한 治療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吳師機가 <略言> 內에서 그 당시의 의사들이 질병의 大小輕重을 가리지않고 무조건 服藥을 권하고, 사람들이 이를 따르기 때문에 外治法을 사용하기 어려웠고, 또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치료기회를 얻기가 어려웠음을 적고 있는 것으로 봐서 외치법을 사용하는데 실제적이 어려움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外治法의 實在 使用原則

外治法의 使用原則 보다는 대개 膏藥의 使用原則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使用原則에서도 지속적으로 內治法의 理致와 상통됨은 理法方藥의 原則에서 본다면 당연한 것이다.

1) 三焦 및 五臟六腑, 八綱, 經絡概念의 適用.

첫째로 三焦概念의 적용으로, 病邪가 있는 부위를 上 中 下焦를 나누어 外治法을 사용하는 데 汗吐下三法이 모두 갖추어져있다고 하였다. 또한 臟腑의 병을 치료하는데 病邪가 있는 곳을 살펴 上 中 下로 나누어 穴을 선택하고 外治法을 實施하여 內服하지 않더라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로 臟腑와 八綱概念의 적용으로, 膏藥이 上焦의 心肺, 中焦의 脾胃, 下焦의 肝腎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고, 五臟을 치료하는데는 淸法과 溫法, 六腑를 치료하는데는 通法과 瀉法이 있으며, 八綱을 나누거나 혹은 互用하여 치료함을 지적하였다.

셋째로 經絡理論의 適用으로 膏藥을 穴位에 붙여 치료할 수 있으며, 예로 <內經>에서 熱病을 치료하며 사용한 五十九刺의 이론을 빌어 針이 經絡과 血을 나누어 '分殺其勢'하여 熱病을 치료하는데 外治法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太陽病外感을 治療할 수 있다하였다.

이렇듯 三焦, 臟腑, 經絡, 八綱概念의 適用은 外治法이 단순히 患部를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많

은 內科疾病을 外治法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內治法의 理致가 外治法의 理致와 같음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다.

2) 外治法에 있어서의 病機的인 認識.

吳師機는 사람의 病은 氣滯와 血凝이 영향을 끼쳐서, 陰으로는 寒濕이 되고, 陽으로는 潮熱이 되는 것 뿐이다라고 하며, 氣血을 流通시키는 것이 곧 補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病機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病機十九條를 예로들어 病機가 통괄될 수 있으니 藥 또한 통괄이 되어 百病을 通治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氣血을 流通시킨다는 측면에서 引導하는 藥들의 必要性에 대한 根據를 提示하였다.

3) 外治法에 있어서 治法.

吳師機는 치료에 있어서 熱한 것과 攻伐하는 것이 藥性이 急하고 猛烈하므로 쉽게 효과를 내며, 涼한 것과 補하는 것이 藥性이 緩하고 느리기 때문에 효과가 熱한 약물과 攻伐하는 약물보다 쉽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反治法을 쓰지만, 從治法을 쓰는 경우는 熱症의 경우 熱로서 邪氣를 움직여야 하는 경우와 熱로서 熱을 外泄시키는 경우이며, 虛證의 경우는 邪氣를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하여 內治法의 理致와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藥物의 配伍, 使用藥物, 引導藥.

藥物의 使用은 病理的인 認識과 治法의 바탕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인식 하에 의해 藥物의 사용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 藥物의 配伍에 있어서는 內治方의 配伍原則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여, 이미 常用되는 많은 內治方들을 膏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葉天士가 平胃散과 常山飲으로 外治하여 치료한 예를들며 外治法의 활용범위를 개척하

있다고 하였다. 또한 膏藥이 百病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內治方들이 하나의 방으로 여러 질환들을 치료한 것처럼, 膏藥에 사용되는 藥이 內治에 사용되는 藥과 같으므로 이러한 약들의 配伍를 통하여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病機를 統括하였으므로 당연히 藥 또한 統括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약들을 配伍한다면 百病通治라는 것이 可能하다라는 것이다.

둘째로 使用藥物에 있어서는 氣味가 厚한 藥을 사용하여야 하며, 修治를 加한 것보다 生用하는 것이 효과가 우월하다고 하였다. 이는 內服하는 것과는 달리 皮膚와 經絡을 통해 藥의 氣가 전달되는 것이므로 氣運을 꺾는 修治나 氣運이 弱한 藥이 효과가 떨어짐을 설명한 것이다.

셋째로 內治法과 달리 外治藥들은 '通經走絡, 開竅透骨, 拔病外出'시키는 藥들의 引導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外治法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皮膚와 經絡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들도 氷片이나 麝香과 같은 것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4) 膏와 기타 外治藥과의 관계.

吳師機는 膏는 삶아서 만드는 것이고, 기타의 外治약은 물리적인 劑型的 변화만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形式에서도 나타나듯 膏로하는 치료가 중심이 되고 기타 外治法이 補助的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를 사용할 때에 相反하는 것과 相佐하는 것의 이용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觀點으로 外治法의 사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여 寒熱, 補瀉 등을 兼하게 한다거나 膏가 가지는 劑型的 短點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外治法에 임하는 자세.

吳師機는 첫째로 傷寒과 溫病을 예를 들어 傷寒의 變證이나 誤治에도 外治法을 사용할 수 있고, 溫病에도 《傷寒論》에 나타난 것에서 類推하여 外治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고, 둘째로 許叔微의 四神丸方에 대해 王晉三이 논평한 것을 예로 들어 옛날의 膏方에서 類推하여 새로운 膏方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고, 셋째로 자신이 만든 膏方이 모두 옛날의 膏方에서 類推하여 만들었다고 하며, 溫故之新하는 자세를 말하였다. 또한 張元素와 許叔微의 예를 들어 옛날과 지금이 다르나 옛날의 方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理致를 알고 圓滑하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吳師機의 설명은 以前에 外治法에 대한 전문서적이거나 이론들이 없었지만, 內治法과 外治法의 理致가 같음을 알고 옛날에 사용한 膏方과 이들이 사용된 理致를 안다면 얼마든지 유추하고 새로운 膏方을 만들 수 있으니, 處方에 拘碍되지 말고 理致를 따라서 영민하게 치료에 임해야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상에서 《略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外治法에 대한 것들은 理論的인 面뿐 아니라 實在的인 臨床에서도 그 내용이 풍부하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長點들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外治法에 대한 持續的인 理論과 實驗 研究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臨床에서의 활발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結 論

以上에서 《理論駢文》의 《略言》을 통해 吳師機의 外治法에 대한 思想을 검토하여 보고,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게 되었다.

1. 吳師機는 〈略言〉을 통해 《理滄駢文》의 著作動機, 外治法의 理論的 根據, 外治法의 使用原則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2. 吳師機는 戰亂 中の 社會狀況 속에서 內治法의 短點과 外治法의 長點을 自覺하고, 많은 臨床經驗을 통해 《理滄駢文》을 著述하였다.

3. 吳師機는 外治法의 理論的인 根據로 歷史的 側面에서 病邪가 外入하는 것이 많음과 《內經》 및 《傷寒論》의 外治法을, 理論的인 側面에서 內治法과 外治法의 理致가 一致함을, 實在的인 側面에서 內治法의 短點과 外治法의 長點, 그리고 이를 통한 相互間的 補完을 들었다.

4. 吳師機는 外治法의 使用原則으로 三焦 五臟 六腑 八綱 經絡 등의 理解와 病機에 대한 認識, 治法, 藥物의 配伍 및 使用法, 膏와 기타 外治藥의 關係, 外治法에 임하는 姿勢 등을 說明하고 있다.

앞으로 〈略言〉 뿐 아니라 《理滄駢文》에 대한 보다 深度있는 접근과 이를 통한 임상적인 활용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1. 신광호 저, 漢方外治療法, 서울,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4, pp 41-44.
2. 洪元植 外 5人 編譯, 韓醫學大辭典(基礎理論篇),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9, pp 249-250.
3. 黃宗勛 編著, 實用中草藥外治法大全, 福州, 福

建科學技術出版社, 1992, pp. 1-3.

4. 賈一江 等 主編, 當代中藥外治臨床大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1, pp.4-6.

5.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周易, 서울, 明文堂, 1987, p. 393.

6. 洪元植 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會, 1984, p. 332.

7. 洪元植 校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6, pp. 430.

8. 洪元植 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會, 1984, pp. 305-306.

9. 吳師機 著, 趙輝賢 注釋, 理滄駢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33-34

10. 吳師機 著, 趙輝賢 注釋, 理滄駢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39.

11. 吳師機 著, 趙輝賢 注釋, 理滄駢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 41.

12. 洪元植 校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5, pp. 87-88.

13. 洪元植 校譯, 上揭書, pp. 157-158.

14. 吳師機 著, 趙輝賢 注釋, 理滄駢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 7.

15. 洪元植 外 5人,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

16. 洪元植 校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6, pp. 499-500.

17. 洪元植 外 5人,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84.

18. 張仲景 著, 重慶市科學技術協會 編輯, 傷寒論手冊, 重慶, 科學技術出版社, 1984, p.17.

19. 洪元植 校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6, pp. 343-344.

20. 洪元植 外 5人,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36

21. 李經緯 程之范 主編, 中國醫學百科全書(醫學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203.

22. 洪元植 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 332.
23. 吳尚先 著, 步如一 等 校注, 《理渝駢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84, pp. 3-4.